

여성 노벨평화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노벨평화상은 다이나미크를 반영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 창설된 이래, 평화정착과 인권향상 등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6개 분야의 노벨상 중의 꽃이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여성에게 이상이 처음 수여된 것은 1905년도이며 2004년 까지 108번의 수상자를 12명이 여성으로 차지한 9%이다. 국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1명, 미국이 3명, 북아일랜드 2명, 스웨덴 1명, 미얀마 1명, 리비아 1명, 이란 1명, 그리고 아프리카 1명이다.

연도별로 수상자를 살펴보면 1905년에 평화협상을 창설한 베르타 폰 슈투터, 1931년에 사회복지기관의 창시자인 제인 아담스, 1946년에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한 메릴리 그린 부처, 1956년에 카톨릭적 프롤레타르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 피플 공동체 등을 창설한 메이리드 코리건 비그스와 베티 윌리엄스 공동수상, 1977년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 1982년에는 권력에 이바지한 알바 위르다, 1991년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아웅산 수지, 1997년에 대인지뢰 사용 금지를 위해 노력한 주디 윌리엄스, 2003년에는 이슬람 세계의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여성과 어린이, 난민제외 등을 위한 인권운동에 헌신한 시리 메바디, 2004년에 여성이 주축이 된 아프리카 농민운동회 주축자 한평운동가 바디이 앙가리에게 상이 주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초창기에 1명, 30년대와 40년대에 각각 1명, 70년대 2명, 80년대 1명, 90년대에는 3명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2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1년과 2003년 그리고 2003년과 4년 후에는 해를 이어 여성이 수상하고 있는 점을 수상과 보수가 유리한 비주류적인 국적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그러하여 노벨평화상이 정치적으로도 한층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수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르면 향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여성이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8월 스위스 베른에서 노벨평화상의 첫 여성 수상자로 선정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에 세계 각국의 여성 1000명을 후보로 추천할 것을 목적으로 <노벨평화상 2005 재단>이 출범했다.

14년 3월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재단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 1000명을 선정하게 된다. 각국에서 1명씩은 배정없이 선정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유엔에서나 인권보장 집합 단체에서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중의 한 명은 1000명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것으로 비전향종교인이 아닌 젊은이로써 인권, 정치적 자유, 제로인인권에 도전하며 전쟁, 빈곤, 분쟁 등을 해소하여 사회정의와 평등화를 이루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 등에 기여한 것이다.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핵무기를 보유 중인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그리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비핵화적인 노력을 위해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바라보는 한국인 여성들이 속출하고 있다. 몇몇은 내전 30년 노벨상이 상이 제정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4년에 유엔이 대통령을 수상하는 계기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문제는 유엔에 후보자들이 후보로서 타당히 설득 있게끔 평가해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illegible]

여성과 노벨평화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간체문장)

노벨평화상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 창설되어 매년 평화정착과 인권향상 등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6개 부문의 노벨상 중의 꽃이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여성에게 이 상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1905년이며 2004년까지 이 상을 수상하였던 108명 중 여성은 12명으로 그 비율은 9%이다. 국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1명, 미국이 3명, 북아일랜드 2명, 스웨덴 1명, 미얀마 1명, 과테말라 1명, 이란 1명, 그리고 케냐 1명이다.

연도별로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1905년에는 평화협회를 창설한 베루타 폰 주트너, 1931년에는 사회복지기관 헨하우스의 창시자인 제인 아담스, 1946년에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한 에밀리 그린 볼치가 이 상을 받았는가 하면, 1976년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 피플 공동체를 창설한 메이리드 코리건 마기르와 베티 윌리엄스가 공동수상했고, 1979년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 1982년에는 군축에 이바지한 알바 뤼르달, 1991년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아웅산 수지, 1997년에는 대인지뢰 사용금지를 위해 노력한 조디 윌리엄스, 2003년에는 이슬람 세계의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여성과 어린이, 반체제인사 등을 위한 인권운동에 헌신한 시린 에바디, 2004년에는 여성이 주축이 된 아프리카 녹화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에게 상이 주어졌다.

연대별로 보면 초창기에 1명, 1930년대와 40년대에 각각 1명, 1970년대 2명, 1980년대 1명, 1990년대에는 3명 그리고 새천년에 들어서 2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1년과 1992년,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에는 해를 이어 여성이 수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상자 모두가 유럽과 미주에서 벗어난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노벨평화상이 정치적 성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문제 등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따르면 향후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여성이 남성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때맞춰 2003년 8월 노벨평화상에 첫 여성수상자가 선정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에 세계 각국의 여성 1,000명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위스 베른에서 <노벨평화상 2005 재단>이 출범했다.

14개국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재단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치인과 교사,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 1,000명을 선정하게 된다. 각 국가마다 적어도 1명은 빠짐없이 선정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접한 단체에서 5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이들 중의 한 명은 1,000명 명단에 오르게 된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것으로 반전활동만이 아닌 삶의 저해요인인 사회·문화적 장벽, 제도와 이념에 도전하며 갈등, 빈곤,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정의와 평등사회를 이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 등에 기여한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적박한 자연자원과 집약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그리고 가부장제 하의 비민주적인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일꾼들이 양산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노벨상을 바라보는 학자와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멀게만 여겨졌던 노벨상은 상이 제정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게 된 2000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상^한 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후보자들이 후보로서
당당히 설수 있기까지 격려하며 지켜보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도 마틴 루터 킹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
었던 것이 생각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헐뜯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잘못된 풍토를 두고 한
말이다. 수상자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시상위원회에 대한 음해
도 마다하지 않았던 쓴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유럽 제국에서는 각 부문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족적을 따라 기념
관을 세우거나 그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의 이름을 명명하여 관광명소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노벨 평화상이 1,000명의 여성 후보들 중 한 명에게 수상된다면 3년 연속으로
여성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관측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바라기는 1,000명
중에서 3명으로 최종 선발될 후보에 우리나라 여성이 포함되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한
다. 노벨평화상에 있어서도 여성시대의 문호는 활짝 열린 것이다.

10.7

여성과 노벨평화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노벨평화상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 창설되어 매년 평화정착과 인권향상 등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6개 부문의 노벨상 중의 꽃이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여성에게 이 상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1905년이며 2004년까지 이 상을 수상한 108명(단체포함) 중 여성은 12명으로 그 비율은 9%이다. 국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1명, 미국이 3명, 북아일랜드 2명, 스웨덴 1명, 미얀마 1명, 과테말라 1명, 이란 1명, 그리고 케냐 1명이다.

연도별로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1905년에는 평화협회를 창설한 베루타 폰 주트너, 1931년에는 사회복지기관 창시자인 제인 아담스, 1946년에는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한 에밀리 그린 볼치가 이 상을 받았는가 하면, 1976년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 피플 공동체를 창설한 메이리드 코리건 마기르와 베티 윌리엄스가 공동수상했고, 1979년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 1982년에는 군축에 이바지한 알바 뮈르달, 1991년에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아웅산 수지, 1997년에는 대인지지회사용금지 위해 노력한 조디 윌리엄스, 2003년에는 이슬람 세계의 엄격한 율법 아래에서 여성과 어린이, 반체제인사 등을 위한 인권운동에 헌신한 시린 에바디, 2004년에는 여성이 주축이 된 아프리카 녹화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에게 상이 주어졌다.

연대별로 보면 초창기에 1명, 1930년대와 40년대에 각각 1명, 1970년대 2명, 1980년대 1명, 1990년대에는 3명 그리고 새천년에 들어서 2명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91년과 1992년,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에는 해를 이어 여성이 수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상자 모두가 유럽과 미주에서 벗어난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노벨평화상이 정치적 성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문제 등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따르면 향후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여성이 남성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때맞춰 2003년 8월 노벨평화상에 첫 여성수상자가 선정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에 세계 각국의 여성 1,000명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위스 베른에서 <노벨평화상 2005 재단>이 출범했다.

14개국 1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재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치인과 교사,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 1,000명을 선발한다. 각 국가마다 1명씩,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접한 단체에서 5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이들 중의 한 명은 1,000명 명단에 오르게 된다.

후보자 자격요건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것으로 반전활동만이 아닌 삶을 옥죄는 사회·문화적 장벽, 제도와 이념에 도전하며 사회정의와 평등사회를 이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 등에 기여한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개발독재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그리고 가부장제 하의 비민주적인 우리 사회 환경이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일꾼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학계에서도 노벨상을 바라보는 학자와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멀게만 여겨졌던 노벨상 제정 100주년을 기념한 2000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상한 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

노나
가왔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후보자들이 후보로서 당당히 설수 있기까지 격려하며 지켜보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떤 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도 마틴 루터 킹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던 것이 생각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헐뜯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잘못된 풍토를 두고 한 말이다. 수상자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시상위원회에 대한 음해도 마다하지 않았던 쓴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노벨 평화상이 1,000명의 여성 후보들 중 한 명에게 수상된다면 3년 연속으로 여성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1,000명 중에서 3명으로 최종 선발될 후보에 우리나라 여성이 포함되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한다. 노벨평화상에 있어서도 여성시대의 문호는 활짝 열린 것이다.